영광 노인복지센터 '여민동락 공동체' 가보니

"일하니 즐겁고 나누니 행복해" 이곳이 바로 어르신들의 삶터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 강위원씨 작년 설립

모싯잎송편 '할매손' 만들어 노인복지활동

"모싯잎송편 모양이 어때요? 좀 투박하죠. 그래도 맛은 최고랍니다. 어르신들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빚은 송편이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10여일 앞둔 요즘 영광군 묘량면 영양리에 자리한 노인복지센터 '여민동락'(與民同樂·사진)은 밀려드는 모싯잎송편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여민동락 가족구성원인 양효라씨는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출 수 없어 하루 주문량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움을 준 사랑의 손길이 그저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여민동락'에서는 최근 농촌사회의 자립적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첫 사업을 시작했다. 영광군의 명품 특산품인 모싯잎 송편 '할매손'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여민동락 강위원(39) 원장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라는 믿음으로 추진했다"며 "모싯잎 재배 생산부터 송편을 빚어내는 일까지 모든 과정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그 판매 수익금은 모두 보살핌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여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강 원장은 "공경과 나눔을 통해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길벗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과 더불어 행복을 나누는 복지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여민동락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강 원장은 지난해 여름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뜻을 같이하는 후배들과 함께 귀향해 '여민동락'을 세웠다.

1997년 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의장을 지낸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강 원장이 작은 시골마을에서 복지활동을 벌이는 것은 '복지가 곧 사회운동'이라는 판단에서다.

1년이 지난 지금 그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복지사업 운영방식을 통해 농촌지역을 살리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여민동락에서는 주·야간보호 및 방문요양서비스 등 노인들을 위한 기본적인 복지서비스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야학 운영, 시장보기 등 기본적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직접 배달서비스 하는 이동 5일 장 운영, 지역복지사랑방인 무료찻집 '동락' 운영 등 복지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살리기 위해 쉼터 수준으로 전락한 자연마을 경로당 42개를 권역별로 묶어 주별로 순회함으로써 건강 및 폭염 폭설대비 예방교육, 각종 정보 전달 및 의견수렴을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물론 운영경비는 6명의 전체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출연금과 휴경지 7천920㎡를 임대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경작하여 얻은 수확물, 지인들의 후원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1년여동안 보살핌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겐 아들·딸 역할로, 공부가 필요한 아이들에겐 학습 도우미로 바쁘고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강 원장은 "지금까지의 농촌복지는 질병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 지원 위주였다"며 "이제는 복지기관의 단순 서비스 공급형 복지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반한 자립적 지역복지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복지수요를 해결해가는 지역 일체형 자립적 생활공동체 형성을 통해 농촌의 삶터를 새롭게 살리는 지역복지운동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 강 원장의 주장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여수신항 대체항 북방파제 적합

여수·광양항 가깝고 수심 깊어 대형선박 접안 가능

'2012 여수 세계박람회' 부지편입으로 기능이 달라지는 여수 신항을 대체할 항구 후보지로 인근 북방파제가 떠올랐다.

2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시청에서 열린 최종 용역결과 발표회에서 여수 신항 대체항구로 신항 북쪽의 북방파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북방파제는 여수·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정박 해역과 가깝고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역무선과 관공선이 접근하기에도 좋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정부가 대체항으로 추진 중인 돌산읍 우두마을앞 구항은 부지가 좁아 부대시설 설치가 곤란하고 조류도 빨라 선박의 안전한 계류에도 장애를 주는 등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구항은 해양공원과 돌산대교·장군도 등이 위치하고 이순신광장이 조성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안친수(공원)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수시는 이 용역결과를 박람회조직위에 제출,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전국항만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적극 반영해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여수시는 대형 여객선과 무역선이 드나드는 관문항인 신항이 박람회 부지에 포함되면서 이 기능을 대체할 항구를 물색하려고 지난 6월 목포해양대학에 용역을 의뢰했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기자 ykpark@

강진청자, 유럽에 자태 뽐내다

지난 18~25일 노르웨이 베르겐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진청자 유럽순회전'을 찾은 관람객들이 청자제작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네덜란드 호르큼시를 시작으로 스웨덴 스톡홀름까지 유럽 8개국 9개 주요도시를 순회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 필리핀 밤반시에 사랑 전한다

결연 1주년 맞아 생활용품 5천점 보내

강진군이 국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필리핀 타르라크주 밤반시에 사랑·희망·나눔을 전한다.

강진군은 필리핀 타르라크주 밤반시에 우호교류협정 1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수집, 기증키로 했다.

강진군 여성단체가 주관한 이번 사랑·희망·나눔 행사를 위해 강진군과 자원봉사회, 각급기관단체장 등이 오는 10월 6일까지 다양한 생활용품을 수집키로 했다.

강진주민들의 사랑이 담긴 수거 물품은 의료를 비롯해 이불·신발·가방·소품·완구 등으로 주민에게 1점씩 기증받아 모두 5천점(1t) 이상을 컨테이너에 선적, 필리핀 밤반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진군은 인구 9만 명인 필리핀 타르라크주 밤반시와 지난 2008년 우호교류협정을 맺고 서로 중학생들의 단기 유학을 추진하는 등우정을 쌓고 있다. 문의 061-430-3146.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지방자치 경영대전 완도군 최고상 시상

완도군(군수 김종식)이 지난 24일 서울 코엑스홀에서 열린 '제 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사진〉

행정안전부와 한국일보사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전에서 완도군은 ▲완도수산물 전국 대중화 실현 ▲드라마 식객 등 영상산업의 유치를 통한 특산품 홍보 ▲중앙정부 공모사업 전종목 선점으로 501억원 확보 등 전국 제일의 '건강의 섬 완도'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앞으로 군민들의 열정과 의지를 한데 모아 '잘사는 완도! 행복한 완도!' 건설과 미래의 희망과 꿈의 비전인 '해양 테크노폴리스 완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농협전남본부 28~30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광주시 상무지구와 동구 KT광장, 전남지역 각 시군 39개소에서 추석맞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

농협은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우수농축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농업인에게는 유통마진을 돌려드리는 물가안정과 농가소득을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지역본부가 직접 운영하는 상무지구와 KT장터에서는 배를 비롯한 사과·멜론·단감·밤·대추·포도·굴비·햅쌀 등 농축산물과 지역특산품을 시중가격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특히 농협은 추석명절을 맞아 제수용품 수요증가 등으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한우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하고,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가격안정 캠페인도 전개한다.

이밖에 전남지역 각 시군 37개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 운영하며, 각 지역축협 판매장에서도 고기를 포함한 축산물을 10~20%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이종태기자 jtlee@

백양사농협조합장에 김용석씨

지난 22일 치러진 장성 백양사농협 선거에서 현 조합장인 김용석(58·사진) 후보가 상대 후보를 133표차로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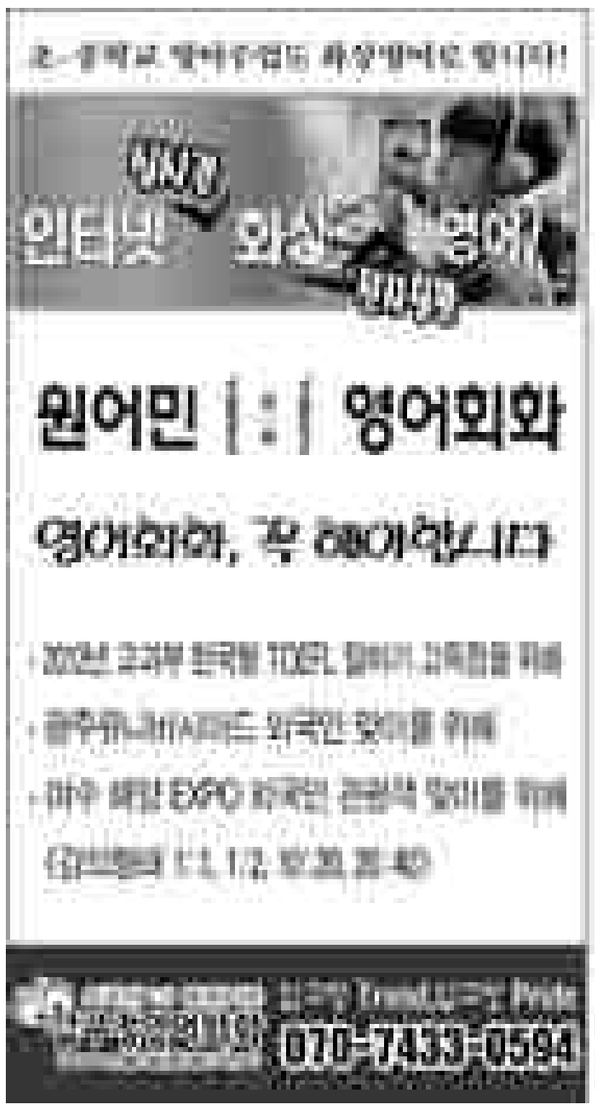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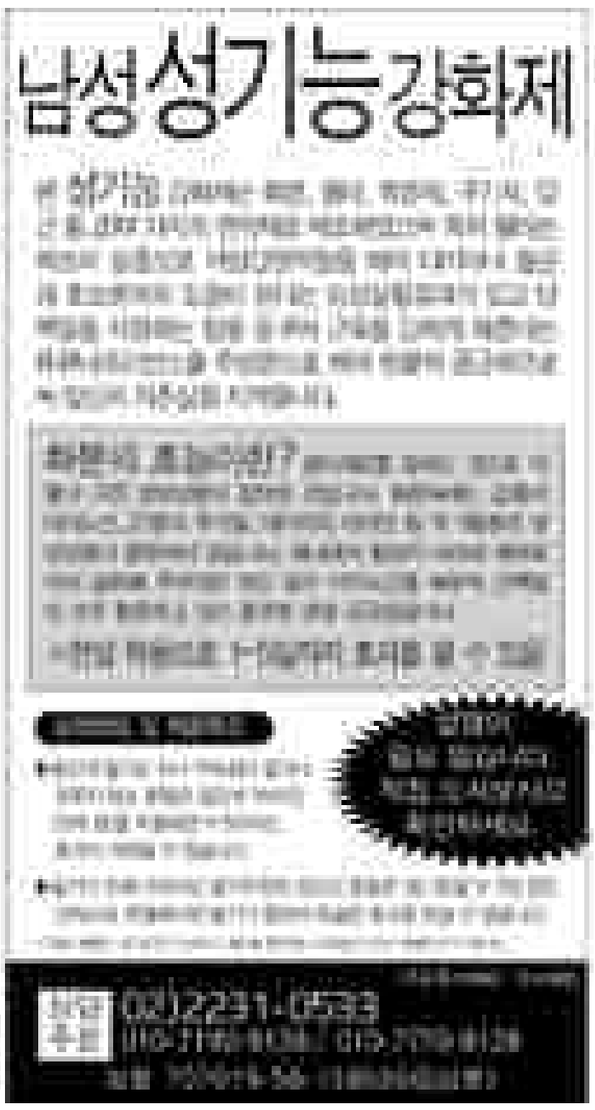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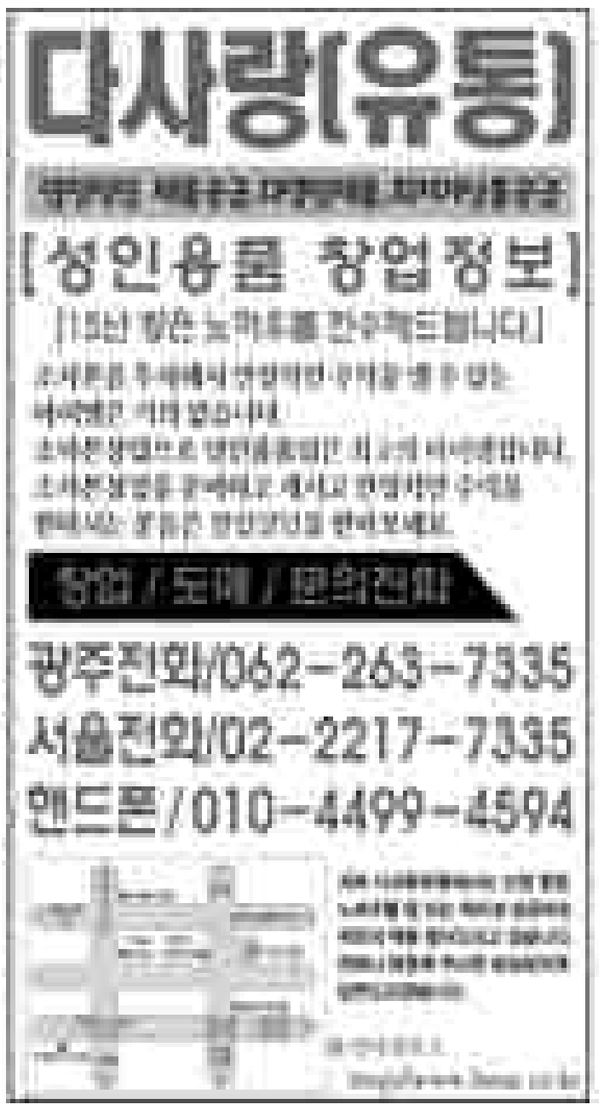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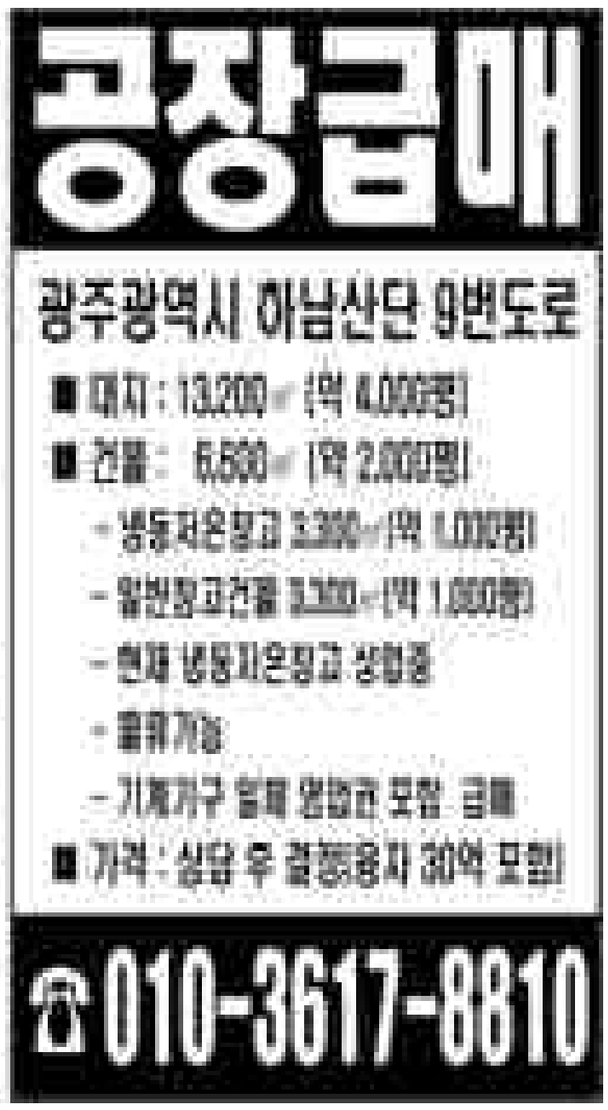
김 당선자는 조합장에게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아끼고 자신의 급여를 대신 사용해 조합원들의 높은 신뢰를 받았다.

김 당선자는 "선거로 인해 분열된 민심을 화합으로 추스른 후 그동안 못했던 조합원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튼튼한 조합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내장산 국립공원 '주민의 날' 행사

오늘 장성 북하면 중평마을서 체육대회 등 열어

내장산 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정석원)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원관리의 일환으로 25일 북하면 중평마을에서 직원 40여명과 주민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지역 주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중평마을과 1사무소 1촌 자매결연과 함께 장수사진 촬영과 마을 주변 청소, 유관기관 합동민원실 운영, 주민화합 체육행사 등이 진행된다. 또 장성군에서는 9개 유관기관과 함께 주민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는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백암사무소 박성배 과장은 "앞으로 소외계층 돕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농촌 일손 돕기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립공원 사무소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